

嶺湖南士林과 錦南 崔溥

최한선*

〈차 례〉

1. 序言
2. 金宗直과 湖南 士林
3. 崔溥와 湖南 士林의 人脈
4. 文學史에서의 湖南人
5. 結語

〈국문초록〉

崔溥(1454-1504)는 耽津人으로 자는 淵淵 호는 錦南인데 進士 澤의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異質하여 剛毅精敏했다고 한다. 금남은 점필재의 문하로서 戊午士禍(1498) 시 그의 집안에 점필재집이 있다는 이유로 訊問을 받고 杖刑을 받은 뒤 端川에 유배되었다가 甲子士禍(1504) 때 處刑되었다. 금남은 호남인으로서 佔畢齋의 학문을 직접 받아들여 이 고장 士林의 발흥에 크게 기여한 첫 번째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 당시 점필재와 어깨를 나란히 한 호남 선비로는 竹林 曹秀文인데 그는 담양 竹林書院에서 배향되고 있거니와 그의 아들 雲谷 曹浩는 점필재의 문하로서 汝忠, 汝謙 등 문학으로 훌륭한 후손을 많이 배출했다.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로 이어지는 학맥은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金宏弼로 이어지는 학맥과 함께 호남 사림의 깊이와 폭을 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부는 후생의 敎導에 亶亶不倦하였는데 해남의 륜을 밀어 있을 때 그 곳은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文學이란 게 없고 禮儀 또한 荒陋했는데 금남은 正論으로써 陋俗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이때 漁樵隱 尹孝貞과 林遇利 그리고 柳桂隣 등을 부지런

히 가르쳤는바 이들을 보고 온 고을 사람들이 翕然하여 마침내 文獻之邦이 되게 했다고 한다. 호남의 사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말할 수 있겠다. 먼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王朝 交替期(1392)와 世祖의 王位 篡奪 事件(1455) 때 입항 또는 낙항해 온 세력과 다음으로는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로 이어지는 이른바 영남을 통하여 호남에 뿌리를 내린 계열을 들 수 있겠다. 호남 사림은 대체로 金宏弼, 崔溥, 宋欽, 朴祥, 李恒, 金安國 계열 등으로 나누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朴祥을 제외한 모두가 金宗直 淵源임을 알 수 있다. 宋欽도 金宗直의 私淑이었으니 송흥을 연원한 박상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뿌리라고 말해도 무방하겠다. 최부 계열은 주로 海南과 羅州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금남 학맥은 尹孝貞, 林遇利, 柳桂隣, 羅晔, 尹衢, 尹巷, 尹行, 尹復, 柳成春, 柳希春, 李仲虎, 鄭介淸, 羅士忱(錦南의 外孫子), 羅德明 등 6 兄弟, 羅緯素(羅德峻의 子) 등으로 이어진다. 최부의 호남 학맥은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1454-1504)로 이어지는 사림의 正脈이었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韓國 儒學史 上 또는 韓國文學史 上과 韓國 義兵史 등에서 뚜렷한 足跡을 남긴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문하들이 이른 호남학에서의 문학적 성과는 浪漫的 情緒라는 風流性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보였다는 데서, 곧 溪山風流를 표방한 부류와는 시 세계를 달리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의 史學, 文學, 經學 등 학문적 영향은 해남과 나주를 중심으로 湖南學의 정립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文學에서는 17세기 중반까지(羅緯素: 1582-1666) 약 2세기 동안 그 전통이 활발히 이어져 나왔고, 그 이후에도 羅景煥(性菴家藏), 鄭錫珍(蘭坡遺稿), 羅允熙(錦坡集), 羅燾圭 등으로 20세기까지 계승되면서 근현대 문학으로 移行되었다.

핵심어 : 금남 최부, 호남 사림, 영남 사림, 호남학

* 전남도립대, 전남문화재연구원장

1. 序言

흔히들 湖南 士林을 논하면 거의 高麗朝 호남 인물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십상이다. 이를테면 湖南 士林은 湖南地方을 중심으로 조선 中宗 代에 성립되어 성장한 사림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 경우 호남이란 주로 全羅道를 일컬으며 그들은 조선 건국과 더불어 그 名分 없는 政權 交替에 反旗를 들고 고려 왕조에 節義를 지키거나 政爭의 피해를 면하고자 전라도로 이주해 온 사대부가문의 後裔들로서 中宗反正(1506) 이후 본격적으로 興起한 세력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계의 大勢로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긴다. 왜냐하면 앞의 주장대로 호남으로 入鄕한 여러 명문가의 후손들이 많은데 그들이 호남으로 入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 土班 勢力에 대한 이해가 너무 薄弱하기 때문이다. 고려 왕실에 대하여 節義를 지켜 호남으로 入鄕을 했던, 政爭을 피해 호남으로 入鄕을 했던 간에 어쨌든 호남엔 그 이방인을 수용할만한 基盤이 있었기에 그들이 터를 잡고, 세력을 키워 中宗 代에 화려한 정계 진출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앞선 주장들 외에 고려 때부터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중앙의 政治 勢力과 交分을 맺으면서 일정한 세력으로 성장한 집안 또는 중앙의 선진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書籍이나 鄕約 등을 통하여 지역을 教化한 집안에 대한 考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谷城의 申崇謙, 靈巖의 崔知夢, 羅州의 文克謙과 鄭可臣, 光州의 鄭地, 潭陽의 田祿生, 高興의 柳濯 등의 집안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性理學的 受容에 대한 긍정적 기반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런 데에 대한 연구는 아직 微微한 편인데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이와 함께 朝鮮 初期에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집안들의 역할

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곧 광주에서 芙蓉亭을 짓고 향약을 통하여 鄕村 教化 등으로 초기 性理學을 전파한 金文發, 정인지 등과 『高麗史』를 修撰하고 權近과 權遇 등에게 수학한 뒤 광주에 喜慶堂을 짓고 향약을 시행한 李先齊는 東人의 중심 인물이었던 李潑과 李涪의 선조이다. 이들은 김종직의 학맥을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 지역 사림 발전에 공헌한 실상이 다대하므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호남에서 사림士林을 논하려면 그 시기를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 말 어수선한 政국政局에서 배극렴·조준·정도전 등이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1392년 7월)하려 하자, 恭讓王은 왕위를 물려 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圃隱 鄭夢周(1337-1392)는 조준을 제거하려는 동시에 고려를 끝까지 받들고자 하다가 이방원의 자객 조영규 등에게 善竹橋에서 피살되고 말았다.

성리학자로서 五部學堂·鄕校 등을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던 정몽주가 義理와 名分論을 앞세워 조선의 이성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따르지 아니한 점은 어쩌면 자연스런 반항이었던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조선이 개국하자 名分과 義理를 배반한 조선이라고 비난하면서, 고려의 忠臣들은 節概와 志操를 내세워 송학산 杜門洞으로 은둔하는 등 조선의 정치에 참여치 않았으며, 정몽주와 뜻을 같이한 그의 제자들은 落南의 길에 들어 嶺南과 湖南으로 歸養 아닌 귀양의 길을 떠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圃隱의 제자 治隱 吉再(1353-1419) 이거니와 그는 스승인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 태상박사라는 벼슬을 주었으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면서 받지 아니하고, 고향인 영남(선산)으로 내려가 性理學의 탐구와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것이 훗날 士林의 始原이 되었다.

이와는 달리 호남에는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과 새로운 조선은 명분 없는 쿠데타(兵變) 王朝라 멸시하고 湖(김제의 벽골제)를 건너 남으로 남으로 발길을 옮겨 가급적 漢陽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했던 節義派 선비들

1) 고영진, 『호남 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24면.

이 왔는데 이들은 크게 王朝 交替期(1392)와 世祖의 王位 篡奪 事件(1455)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 때에는 광주 출신 錦城 范氏의 范世東, 나주 출신 河東 鄭氏의 鄭地, 天安 全氏의 全新民, 순창에 은거한 沃川 趙氏의 趙瑜, 영암에 은거한 光山 金氏 金子進, 장성에 은거한 金麟厚의 선조 蔚山 金氏 金穩, 광주 卓氏의 卓光武 등과 장성 삼계와 담양 봉산으로 내려온 新平인 宋龜와 宋希璟 형제 등이 그들이다.

宋希璟과 宋龜 형제는 충남 連山을 세거지로 하는 신평 송씨는 宋丘進을 시조로 하며 전남 南平을 세거지로 하는 신평 송씨는 宋自殷을 시조로 한다. 그 가운데 희경과 구는 송구진으로부터 6세손인데 藝文館修撰 등을 지냈으며 聖節使로 명나라에, 回禮使로 일본에 다녀오는 등 외교에도 능했던 인물이다. 일본에 다녀와서 남긴 <老松堂日本行錄>은 수필 문학으로 서도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는 아우 구와 더불어 우의가 두터웠는데 벼슬을 그만 두고 담양에 은거하여 신평 송씨 담양의 入鄕祖가 된다.

그의 후손 가운데 知止堂 宋欽이 있는데 그는 寒暄堂 金宏弼과 從遊한 인물로 그의 문하에서 俛仰亭 宋純과 訥齋 朴祥, 學圃 梁彭孫 등이 배출되어 명실 공히 호남 사림의 原流의 하나를 이루게 하였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송흠은 송순, 박상, 양팽손 등은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여 호남의 선비 숲 士林을 일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世祖의 王位 篡奪에 名分 없음을 통탄하고 호남으로 落南한 명문 세력들은 순천과 해남에 은거한 順天 金氏의 金宗瑞, 長興에 유배된 晉州 鄭氏의 鄭棓, 靈巖에 은거한 南平 文氏의 文孟和, 光山에 은거한 朴祥의 아버지 忠州 朴氏의 朴智興, 務安에 은거한 務安 朴氏의 朴益卿, 長興에 은거한 忠州 金氏의 金麟, 高興에 은거한 礪山 宋氏의 宋侃, 淳昌에 은거한 高靈申氏의 申末舟, 羅州에 은거한 慶州 李氏의 李碩, 海南에 은거한 原州李氏, 潭陽에 은거한 洪州宋氏, 咸平에 은거한 陽城李氏 靈巖에 은거한 咸平魯氏 魯宗周 등을 들 수 있겠는데²⁾ 이들 또한 훗날 호남 사림의

2) 고영진, 앞의 책, 17-29쪽.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고향으로 내려간 길재는 江湖 金淑滋, 崔雲龍 등 제자들을 양성하였는데, 그가 체득한 樂天知命의 태도와 憂國憂民의 衷情은 후일 사림 정신의 뿌리가 되었다. 定宗에게 올린 疏에서는 不事二君의 충과 절을 伯夷와 叔齊에게 비유하여 事君에서의 義理를 내세웠다. 그는 程朱學에 바탕을 두고 忠과 孝를 위주로 하는 道學을 밝혔으며 異端 排斥을 주장하였다. 그의 학문은 정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조선 성리학의 實踐的인 면을 강조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의 제자 金淑滋(1389-1456: 호 강호 시호 문강)는 아들 佔畢齋 金宗直(1431-1492: 본 선산, 시호 문충)에게 길재의 학통을 전수하여 영남학파의 宗祖가 되게 하였다.

김종직은 孝悌忠信을 주안으로 하는 실천적인 학문을 강조하였으며 仁政의 실시를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五倫이 각각 질서를 얻고 四民(士農工商)이 각각 그 직업에 안정케 하는 정치를 표방했는 바, 그런 정치의 근본은 교육이라 하여 鄕校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재 등용의 중요성과 元勳後裔의 세습적인 등용에 반대하였다. 그 결과 成宗의 총애를 받아 자신의 문인들을 많이 등용시킨 반면, 勳舊派(유자광, 이극돈 등)의 심한 반발을 사서 훗날 戊午士禍(1498)의 빌미가 되었다. 호남의 사림을 말하는 자리에서 늘 앞자리에 언급되는 김종직에 대하여 절을 달리하여 살피기로 한다.

2. 金宗直과 湖南 士林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³⁾으로 이어지는 김종직의 문하에는 濯纓 金駟孫, 一蠹 鄭汝昌, 寒暄堂 金宏弼, 秋江 南孝溫, 錦南

3) 『東國文獻錄』, 門生編

崔溥 등 훌륭한 선비들이 있었거니와 그 중에서 小學童子로 일컬어진 김 평필(1454-1504:본 서흥, 호 한훤당, 사옹, 서울 출생)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호남의 인재를 직접 가르쳐 스승의 학문이 호남에서 꽃피게 했다.

한편, 成宗實錄 편찬을 위한 史草에 김종직의 弔義帝文이 실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수양대군이 端宗의 자리를 빼앗은 반인륜적 행위를 비방한 것이라고 문제를 일으키는(이극돈 등) 바람에 이미 죽은 김종직을 剖棺 斬屍함은 물론 그의 제자들도 죽이거나(김일손 등) 귀양을 보냈다.(김평필, 최부 등) 이 사건이 이른바 戊午士禍(1498)였는데 김평필 또한 熙川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전남 順天으로 이배되었다. 그가 순천에 있을 때 그 곳의 선비 崔山斗(1483-1536:본 광양, 호 신재, 나복산인)를 가르쳤다. 尹衢 · 柳成春과 함께 호남의 三傑로 추앙된 최산두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金麟厚(1510-1560:본 울산, 호 하서, 시호 문정)를 가르쳤으며, 김인후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鄭澈(1536-1593:본 연일, 호 송강, 시호 문칭) 등을 배출했다.

한편, 호남 사람 崔溥(1454-1504:본 나주, 호 금남)는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으로 端川에 유배되었다가 연산군 10년(1504) 甲子士禍 때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문하에서 해남의 柳桂隣, 尹孝貞, 林遇利 등 훌륭한 인물이 배출, 湖南學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였다.

유계린은 두 아들 柳成春과 柳希春에게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도학적 학풍을 잇게 했으며, 漁樵隱이라는 호를 가졌던 윤효정은 尹衢, 尹巷, 尹復 등의 아들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임우리는 조카 林億齡에게 사상과 학문을 전수하여 훗날 호남 사람의 詞宗이 되게 하였다.

또한 金宏弼의 학문은 趙光祖(1482-1519:본 한양, 호 정암, 시호 문정)에게 훌륭히 전수되었는데 그의 학문은 호남 학자인 朴祥, 梁山甫, 崔山斗 등에게 이어졌다. 東國의 三林으로 일컬어진 朴祥(1474-1530:본 충주, 호 놀재, 시호 문간)에게서 호남의 詞宗으로 칭송되는 林億齡과 俛仰亭 詩壇의 주인 宋純 등이 나와 조선 中期 호남 詩壇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世祖의 王位 篡奪(1455년)은 의리와 명분에 죽고 살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운명을 뒤바꾼 대사건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삼문 등의 死六臣과 김시습 등의 生六臣이 목숨을 바쳤거나 혹은 세상을 버림으로써 端宗에 대한 충성의 다짐은 물론 義理와 節義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비들은 명분 없는 쿠데타(兵變)에 충격을 받고 벼슬길에의 厭症을 느낀 채 영남 또는 호남으로 落南의 길을 택했다.

鳥嶺을 넘어 고향인 영남으로 내려간 선비들은 지역 鄉村의 경제적 기반에 힘입어 書院 등을 설립, 後進養成과 性理哲學의 연구에 전념하였다.

한편, 호남으로 낙남해간 선비들은 주로 호남지역에 妻家 또는 먼 親姻戚을 두었을 뿐 특별한 향촌에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호남이 漢陽으로부터 지역적으로 遠隔한 위치에 있기에 政爭의 화를 피할 수 있으며 기후가 따뜻한 탓으로 物産이 豊富하며 그로 인해 人心이 넉넉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一葉片舟 같은 한 몸을 호남에 맡겼었다. 그러니까 세조의 王位篡奪 사건은 중앙의 선비들을 영남과 호남으로 隱遁 또는 避世하게 만든 이른바 “선비대이동”사건의 결정적 계기로서 역사적 가치판단과는 다른 각도로 평가되거나, 호남으로 落南한 선비들은 각기 자기 씨족의 호남 입향조入鄉祖가 되었다. 세조의 왕위찬탈(1455년)을 필두로 무오사화戊午士禍(1498), 갑자사화甲子士禍(1504), 기묘사화己卯士禍(1519) 등은 호남으로 선비들의 낙남落南을 가속화加速化하였다.

光州의 忠州朴氏, 潭陽의 文化柳氏, 洪州宋氏, 羅州의 錦城羅氏와 羅州羅氏, 海南의 原州李氏와 海南尹氏, 高興의 高靈申氏와 礪山宋氏 등이 대표적 사례이거니와 그들은 處 또는 隱遁地로서 호남을 택하였으며 그 후에는 호남에 뿌리를 박고 世居함으로써 훗날 곧 成宗 대 이후 士林으로 성장하여 호남사림 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확실한 영향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광주나주장성·창평(담양)은 호남사림의 중심지로서, 사림의 대부분은 무등산 元曉寺 溪谷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처음 호남 지역에 들어온 선

비들은 호남에서 오랜 동안 살아온 鄉班家(土班)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 도움의 대가로 자체들의 교육을 담당, 호남의 선비가 융성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였는데 학문의 전수 및 講學 활동은 주로 私塾, 書堂, 樓亭 등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영남의 선비가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사립종합대학교격인 書院을 중시하여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을 한 것과는 달리, 호남으로 내려간 선비들은 경제적 기반이 거의 없는 낮은 지역으로 낙남했던 탓으로 경제적 여유 등이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로 그 지역 향반가의 도움으로 사숙이나 서당 혹은 누정을 건립, 그 곳에서 주로 활동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中宗대 전국의 누정 880여 개 가운데 약 반이 영남과 호남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는바, 실제로 호남지역 특히 호남사람의 중심 활동지였던 광주·나주·장성·담양 등에는 많은 누정이 건립되었으며 그러한 누정에서 지어진 樓亭 漢詩는 국문학사의 한 획을 지었는데 그 질과 양에서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누정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시를 지으며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들의 활동은 단순한 현실의 逃避에서 나온 패배자의 아우성이 아니라 名分과 義理의 정치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적 불합리한 여건에서 나온 憂國表情의 몸부림이었는데, 그것을 창조해 내었던 원천과 뿌리는 다름 아닌 道學의 정신과 義理의 자세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사림문화의 원천인 도학의 정신과 의리의 자세는 국가의 운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義兵활동이라는 實踐행동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에는 經典의 심오한 뜻을 천착하는 강학활동이나, 모순된 정치 현실을 개탄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 현실 참여의 敘事文學創作 및 自然的 秩序와 그에 同和를 갈망하는 抒情詩의 창작으로 실현되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가 곧 金德齡 등 호남의 義兵활동과 <宋大將軍歌><聞丐歌> 등의 敘事漢詩와 <息影亭 二十詠> 등의 樓亭 漢詩 및 <俛仰亭歌>등의 國文 歌辭文學이다.

다가올 21세기는 정신문화와 情報가 주가 될 것이며, 신지식 창출의

능력이 국력을 좌우할 전망이라고들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한 저력은 두 말할 여지없이 전통의 정신문화에 기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燕巖 朴趾源(1737-1805)이 말한 法古創新의 창작적 자세를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되기도 남는 일일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 문화 가운데 性理哲學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으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그 가치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곧 韓國學 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문화 유산은 조선시대 우리의 風과 俗뿐만 아니라 오늘의 생활에까지 깊숙하게 영향 작용하고 있어서 공자가 살아야한다느니 또는 죽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야단법석이다.

韓國學, 그것은 성리철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信仰, 民俗, 文化, 文學, 建築, 音樂, 美術 등이 아닐 수 없겠는데, 그 중에서 영남과 호남이 하나의 뿌리로부터 분갈이하여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우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道學思想과 그에 기반하여 滿開한 救國運動과 文學活動이라 생각하거니와, 若無湖南 是無國家로 대변되는 이 지역의 눈부신 義兵 활동은 전라도 각 고을마다 의병장이 없는 고을이 없을 정도로 救國의 대열에 앞장을 섰고, 무등산 元曉寺 계곡으로부터 비롯된 호남의 詩歌 文學은 전남 담양의 樓亭을 중심으로 그 절정을 이루어 주옥같은 명작들을 남김으로써, 이 지역을 조선시대 시가의 메카로 공인케 하여, 이천년 십일월 십일일 마침내 가사문학관이 건립·개관되어,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꾸게 할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3. 崔溥와 湖南 士林의 人脈

崔溥는 耽津人으로 자는 淵淵 호는 錦南인데 進士 澤의 아들이다. 나면 서부터 異質하여 剛毅精敏했다고 한다.⁴⁾ 금남은 점필재의 문하로서 戊午

士禍(1498) 시 그의 집안에 점필재집이 있다는 이유로 訊問을 받고 杖刑을 받은 뒤 端川에 유배되었다가 甲子士禍(1504) 때 處刑되었다. 금남은 호남인으로서 佔畢齋의 학문을 직접 받아들여 이 고장 士林의 발흥에 크게 기여한 첫 번째 세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 당시 점필재와 어깨를 나란히 한 호남 선비로는 竹林 曹秀文인데 그는 담양 竹林書院에서 배향되고 있거니와 그의 아들 雲谷 曹浩는 점필재의 문하로서 汝忠, 汝謙 등 문학으로 훌륭한 후손을 많이 배출했다.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로 이어지는 학맥은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金宏弼로 이어지는 학맥과 함께 호남 사림의 깊이와 폭을 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부는 후생의 教導에 亶亶不倦하였는데 해남의 문을 밀어 있을 때 그 곳은 바다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文學이란 게 없고 禮儀 또한 荒陋했는데 금남은 正論으로써 陋俗을 변화시켰다고 한다. 이때 漁樵隱 尹孝貞과 林遇利 그리고 柳桂隣 등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바 이들을 보고 온 고을 사람들이 翕然하여 마침내 文獻之邦이 되게 했다고 한다.⁵⁾

호남의 사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 말 할 수 있겠다. 먼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王朝 交替期(1392)와 世祖의 王位 篡奪 事件(1455) 때 입항 또는 낙향해 온 세력인데 전자 때에는 광주 출신 錦城 范氏의 范世東, 나주 출신 河東 鄭氏의 鄭地, 天安 全氏의 全新民, 순창에 은거한 沃川 趙氏의 趙瑜, 영암에 은거한 光山 金氏 金子進, 장성에 은거한 金麟厚의 선조 蔚山 金氏 金穩, 광주 卓氏의 卓光武 등과 장성 삼계와 담양 봉산으로 내려온 新平인 宋龜와 宋希璟 형제 등이 그들이다.

후자 때 곧 世祖의 王位 篡奪이 名分 없음을 통탄하고 호남으로 落南한 명문 세력들은 순천과 해남에 은거한 順天 金氏의 金宗瑞, 長興에 유배된 淸州 鄭氏의 鄭芑, 靈巖에 은거한 南平 文氏의 文孟和, 光山에 은거한 朴祥의 아버지 忠州 朴氏의 朴智興, 務安에 은거한 務安 朴氏의 朴益

卿, 長興에 은거한 忠州 金氏의 金麟, 高興에 은거한 礪山 宋氏의 宋侃, 淳昌에 은거한 高靈申氏의 申末舟, 羅州에 은거한 慶州 李氏의 李碩, 海南에 은거한 原州李氏, 潭陽에 은거한 洪州宋氏, 咸平에 은거한 陽城李氏, 靈巖에 은거한 咸平魯氏 魯宗周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로 이어지는 이른바 영남을 통하여 호남에 뿌리를 내린 계열을 들 수 있겠다. 호남 사림은 대체로 金宏弼, 崔溥, 宋欽, 朴祥, 李恒, 金安國 계열 등으로 나누는데⁶⁾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朴祥을 제외한 모두가 金宗直 淵源임을 알 수 있다. 宋欽도 김굉필을 私淑했으니 송흙을 연원한 박상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뿌리라고 말해도 무방하겠다. 이러한 호남의 학맥은 明宗((1545-1567)대에 이르면 徐敬德, 李滉, 曹植 등의 학파가 형성되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그때 宋純, 金麟厚, 羅世纘, 林亨秀, 林億齡, 梁山甫, 梁應鼎, 吳謙 등의 宋純 계열과 金宏弼, 宋欽, 朴祥, 李恒, 金安國, 朴淳, 鄭介淸 등의 徐敬德 계열로 양분된다. 주목되는 바는 서경덕은 金宏弼-李延慶-서경덕으로 이어지는 학맥이지만 호남 학맥을 논할 경우 기호 사람의 최장적인 서경덕을 대표로 앞세우곤 한다.

한편, 여기에 최부 계열은 林億齡을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최부 계열은 주로 海南과 羅州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금남 학맥은 尹孝貞, 林遇利, 柳桂隣, 羅陞, 尹衢, 尹巷, 尹行, 尹復, 柳成春, 柳希春, 李仲虎, 鄭介淸, 羅士忱(錦南의 外孫子), 羅德明 등 6 兄弟, 羅緯素(羅德堞의 子) 등으로 이어진다.

해남 蓮洞에 자리를 잡은 尹孝貞은 孤山 尹善道의 高祖父인데 해남 鄭氏家와 혼인을 한 배경으로 名門 巨族의 발판을 마련한다. 윤효정은 橋亭 尹衢, 尹行, 杏堂 尹復 등 뛰어난 삼형제가 나오는데 己卯名賢으로 칭송되는 윤구는 고산의 曾祖父로서 해남 윤씨가의 명예를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다. 己卯士禍 때 靈巖으로 유배된 그는 그 곳에서 후진 양성에 몸 바쳤

4) 유희춘, <금남선생집서>, 『금남집』

5) 유희춘, 같은 곳.

6) 고영진, 앞의 책, 28면.

으며 <橋亭遺稿>를 남겼다. 윤구의 아들 尹毅中은 左參贊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尹惟幾는 江原道 觀察使를 역임 했는데 윤선도를 양자로 맞아들여 海南 尹氏家의 榮譽를 잇게 했다. <孤山遺稿>를 남긴 孤山은 <漁父四時詞> 40수 등 75수의 시조를 남겼는데 長歌의 松江과 더불어 短歌의 최고봉으로 칭송되는 國文學界의 큰 별이다. 그의 孫子 尹爾厚는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支庵日記>와 歌辭 <逸民歌> 등을 남겨 祖父의 文學적 재능을 이었다.⁷⁾ 고산의 증손 恭齋 尹斗緒는 조선 후기 三齋의 한 사람으로 文人畫家로서 이름을 날렸으며 時調를 통해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草野에서 超然하게 살겠다며 曾祖父 고산의 시적 세계를 계승하고 있다. 그 밖에도 尹氏家는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시에는 많은 義兵將을 배출하여 救國의 운동에 赫赫한 공을 세웠다.

윤구의 사위 중에는 광주에서 鄉約을 처음 실시하고 광주 鄉校를 중심으로 儒學을 크게 振作시킨 華門 李先齊의 5대손 履素齋 李仲虎가 있다. 그는 全羅監査와 大提學 등을 지냈는데 네 아들 汲, 潑, 洁, 溲 등을 두었다. 寒暄堂의 學脈을 이은 柳西 柳藕의 門下인 그에게서 金謹恭, 朴應男, 朴應福, 尹斗壽, 崔滉 등 傑出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十代紅門으로 이름 난 그 집안은 남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았는데 이중호의 아들 李潑은 海남 外家에서 태어났다. 그는 別菴 金謹恭과 習靜 閔純의 문하에서 受學하였으며 李珥, 成渾 등과 從遊했다. 그는 重厚嚴正한 人品으로 宣祖에 의해 信任을 얻어 吏曹銓郎이라는 要職에 앉았으나 후일 鄭汝立의 역모에 휘말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가족들도 큰 화를 입었다. 이발가문의 滅門과 伸冤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外家가 같은 尹氏 집안인 丁若鏞의 <東南小史>에 잘 나타나 있다. 이 己丑獄死로 李潑과 鄭介淸이 희생되자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최부의 학맥은 크게 꺾이게 되었다.

鄭介淸은 外家가 錦城 羅氏인데 徐敬德의 문하로서 李珥, 尹善道, 朴淳, 柳希春 등에게도 激讚 받은 인물이었다. 유희춘은 表從姪인 羅德峻 형제

를 그에게 맡겼다. 그는 <東漢晉宋所尚不同說>을 지어 節義와 清談을 구별하여 清談의 弊端을 설교하였는데 이로써 西人인 鄭澈 등이 歌壇을 형성하여 무등산 주변을 중심으로 淸風明月하는 士風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鄉約을 중시하고 정통 주자학을 신봉하여 居敬 窮理를 주종하는 道學至上主義를 표방하였으나 서인의 誣陷에 의해 己丑獄死에 휘말려 큰 困惑을 치렀다. <愚得錄>이 전하는데 그 가운데 壬辰倭亂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島夷將欲有變>이 읽는 이의 肝膽을 서늘케 한다.

杏堂 尹復은 <杏堂先生遺稿>를 남겼고 全羅道使, 忠淸道 觀察使 등을 역임했는데 珠玉 같은 漢詩를 남겨 湖南詩壇을 풍요롭게 빛냈다.⁸⁾ 安東大都護府使 시절 退溪와 交遊하였는바 그 인연으로 훗날 甥姪들이 퇴계의 문하가 된다. 海남 윤씨가 駱川 尹毅中은 尹衢의 아들인데 慶尙道 觀察使, 大司憲 등을 지냈으며 東西 分黨 때 東人으로 坐定하였다. 鄭汝立 逆謀 사건(1589)에 李潑의 外叔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으며 동인의 南北分黨 때 南人으로 활동하였다.

杏堂의 甥姪 중에 楓菴 文緯世는 橋亭과 眉巖을 私淑했는데 外叔 행당의 소개로 退溪 門下에 들어 <八陳圖> 등을 익히고 性理學을 배웠는데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아들 5명과 奴僕, 弟子 등을 이끌고 義兵 활동을 벌였으며 특히 軍糧米를 조달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다. 己丑獄死(1589) 때 東人들이 무참히 禍를 입음에 衝擊을 받고 杜門不出 學問에만 열중하였다. 壬辰倭亂 <倡義日記>와 漢文 敘述詩를 다수 남겨 호남시단에서 敘述詩의 世界를 擴張했다는 評을 듣고 있다.⁹⁾

柳桂隣에게는 懶齋 柳成春과 眉巖 柳希春 두 뛰어난 아들이 있었다. 유희춘은 尹衢, 崔山斗와 더불어 湖南 三傑로 稱誦받는 인물인데 吏曹銓郎을 지내고 賜暇讀書를 하는 등 囑望되는 인물이었지만 己卯士禍로 유배되어 夭折하는 바람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유희춘은 <眉巖日記>로 유명한 인물이다. <미암일기>는 宣祖 卽位年

7) 전남문학백년사추진위원회, 『전남문학백년사』, 한림, 1997, 98면.

8) 최한선, 『윤복의 생애와 관련 유적』, 목포대 박물관, 2003, 15면.

9) 최한선, 「풍암 서술시의 이해론적 전제와 미학」, 『古詩歌研究』 제11집, 2003.

(1567)에서부터 10년간의公私인 내용을 적은 충실한 報告書 형식의 일기로서 <宣祖實錄>의 기본 史料로 활용되었다¹⁰⁾. 미암은 부친 외에도 최산두와 金安國에게서도 수학했다. 良才驛 壁書事件(1547)에 連累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함경도 鐘城으로 移配되었다. 19년 동안 유배 생활 중 李滉과 書信으로 朱子學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朱子大典>을 校訂하고 <國朝儒先錄>을 편찬했으며, <眉巖集>과 시조 <獻芹歌> 등을 남겼고, 외조부 金南의 <漂海錄>을 간행했다.

그의 문하에는 姨從姪인 羅德明, 羅德峻, 羅德潤 형제가 있는데¹¹⁾ 이들 형제는 錦南의 外孫자인 錦湖 羅士忱의 아들들로 훗날 미암의 勸誘로 鄭介淸의 門下에 들어 그의 실천적인 학문을 익혀 임란 때 구국에 나섰으며 스승 困齋의 伸冤을 위한 上疏를 올리기도 한다. 金宏弼의 학문을 계승한 金安國의 門人이기도 한 미암은 그 문하에 李好閔, 李善慶, 梁希尹, 許篈, 許筠 崔龍奉 등을 두었다.

羅士忱은 유희춘과 姨從 兄弟인데 어머니 崔氏에 대한 孝誠이 지극했다. 李滉의 아버지인 李仲虎에게 배우기도 하였는데 金應期, 金千鑑 등과 함께 遺逸로 천거되어 尼山 縣監 등을 歷任하였는데 林淳과 李珣를 從遊하였다. 고향에서 講義契를 만들어 後進을 양성한 그는 鄭汝立 逆謀 事件에 連累되어 6명의 아들과 함께 獄苦를 치렀는데 孝子 집안에 逆臣이 없다는 宣祖의 特赦로 본인은 풀려나고 아들 5형제는 귀양보내졌다.

鏡城으로 流配간 羅德明은 流配地에서 壬辰倭亂을 만났는데 鞠景仁등이 叛亂을 일으켜 일본인과 內通하자 이들을 討伐하는데 공을 남겼으며 문학에도 造詣가 깊어 문집<嘯浦遺稿>가 전한다. 羅德峻은 柳成龍의 薦舉로 望雲監牧官을 지내고 후방의 軍糧米 備蓄에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인데 그의 아들 羅緯素는 시조 <江湖九歌>의 작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시조는 그와 교분이 두터웠던 孤山の <漁父四時詞>와 비교되면서 江湖詩歌의 흐름을 계승했다는 평을 듣는데 <松岩遺稿>가 전한다.

10) 최한선 외, 『다시 읽은 미암일기』, 도서출판 무진, 2004, 11면.

11) 이종범,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002, 561-562면.

羅德憲은 호가 壯岩인데 流配에서 풀려난 뒤 壬辰倭亂과 李适의 亂(1624) 때 큰 공을 세웠다. 외교적 手腕이 뛰어나 중국 瀋陽을 세 차례나 다녀왔던 그는 忠烈의 諡號를 받았다. 金성 나씨 집안은 景宗 死後(1724) 커다란 정치적 시련을 겪는데 羅德峻의 曾孫자인 羅斗冬은 曾祖 3형제인 羅德明, 羅德峻, 羅德潤의 글을 묶어 <錦城三稿>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羅德明의 <嘯浦遺稿>, 羅德峻의 <錦巖拾稿>, 羅德潤의 <錦峰拾稿> 외에 羅士忱의 <錦湖遺事>가 添附되어 있다.

林遇利는 善山人으로 秀의 元, 亨, 利, 貞 네 아들 중 셋째이다. 그에 대해서는 一齡이란 아들이 있었으나 바로 위의 형인 亨의 다섯 아들만 이름이 높지 못했다. 亨에게는 千齡, 萬齡, 億齡, 百齡, 九齡 등의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현달했다. 千齡은 領議政에 追贈되었는데 <遯庵先生文集>을 남겼고, 구령은 광주목사로서 善政을 베풀어 稱誦받았다. 백령은 右議政에 追贈되었으며 乙巳土禍에 연루되어 화를 입혔다.

억령은 호가 石川인데 호남의 詞宗으로 退溪와 栗谷, 聽松, 玉峰, 高峰, 河西, 龜峰 등에게 칭송 받은 대 시인이다. 석천은 어려서 壬亂 의병장 懷齋 朴光玉의 부친인 外孫 朴鯤에게 수학하였고 자라선 訥齋 朴祥과 六峰 朴祐 형제의 門下에 들었다. 그는 시에서의 天然과 無爲의 音律觀을 주장했는데¹²⁾ 그런 내용은 <聽松堂記>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게 주목되는 바는 여럿인데 특히 退溪와 시를 논한 <喜林大樹見訪論詩>는 그의 詩論을 잘 나타내준다. 62세로 潭陽府使로 내려온 이후론 平淡 自律한 시 세계를 펼쳐보였는데 莊子の 息影 사상을 수용한 성산의 息影亭과 棲霞堂 생활은 호남시단을 탄탄하고 심대하게 하였다. 霧峰 高敬命, 松江 鄭澈, 棲霞堂 金成遠 등과 어울려 때론 벗으로서 때론 스승과 제자로서 交遊하면서 格에 拘碍되지 아니한 그러면서도 氣稟과 格調를 잃지 않는 講學과 시창작 활동을 펼쳤다. 潭陽과 康津 그리고 海南을 오가며 珠玉 같은 漢詩文을 많이 남겨 명실상부하게 호남을 文鄉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특히

12) 최한선, 『석천 임억령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그의 <宋大將軍歌><古器歌>와 같은 敍事 漢詩는 한시로써 사회 현실을 告發하고 批判한 것으로 조선 중기에 이미 寫實主義 文學觀을 실천으로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담양 息影亭과 棲霞堂, 環碧堂, 蕭灑園 등에서 읊은 <息影亭 二十詠><俛仰亭 三十詠> 등 樓亭 한시는 뒷날 松江의 江湖 閒靜의 歌辭文學을 孕胎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¹³⁾ 송강은 석천으로부터는 漢詩를, 면양정으로부터는 國文詩歌를 전수 받아 호남 시단의 폭과 넓이를 더하면서 한국 시가사의 큰 인물로 성장하였다. 그의 문하에서는 石洲 權輶, 石田 成輅 등이 배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부의 호남 학맥은 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1454-1504)로 이어지는 사람의 正脈이었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사람들은 韓國 儒學史 上 또는 韓國文學史 上 과 韓國 義兵史 등에서 뚜렷한 足跡을 남긴 인물들이 다수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문하들이 이룬 호남학에서의 문학적 성과는 浪漫的 情緒라는 風流性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어보였다는 데서, 곧 溪山風流를 표방한 부류¹⁴⁾와는 시 세계를 달리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의 史學, 文學, 經學 등 학문적 영향은 해남과 나주를 중심으로 湖南學의 정립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文學에서는 17세기 중반까지(羅緯素: 1582-1666) 약 2세기 동안 그 전통이 활발히 이어져 나왔고, 그 이후에도 羅景煥(性菴家藏), 鄭錫珍(蘭坡遺稿), 羅允熙(錦坡集), 羅燾圭 등으로 20세기까지 계승되면서 근현대 문학으로 移行되었다.

13) 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목원어문학』 제9집, 1990.

14) 최한선, 「호남 시가의 풍류고」, 『古詩歌研究』 창간호, 1993.

4. 文學史에서의 湖南人

한국문학사에서 文學圈을 말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조선시대 호남 인물들의 시문학 활동 중심지였던 光.라.장.창(光州, 羅州, 長城, 昌平)을 손꼽을 수 있겠다. 李暉光, 鄭斗卿, 許筠 등 조선시대의 유명한 평론객들에 의하여 높이 칭송된 많은 인물들이 호남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모두 당대의 걸출한 시인이었다고 한다.

“뛰어난 시인과 문장가로 숭앙된 인물들이 호남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15)

“호남에는 높고 깨끗한 山水의 정기가 사람에게 모여 文章과 奇傑한 선비가 많았다.”¹⁶⁾

“肅宗朝 호남에는 당세의 저명한 인재가 많았는데 그들은 학문과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¹⁷⁾

등 한결같이 입을 모아 칭송하였던 인물 중에는 朴祥, 朴祐형제를 필두로 梁彭孫, 宋純, 尹衢, 林億齡, 吳謙, 羅世讚, 李恒, 金麟厚, 柳希春, 柳成春, 林亨秀, 梁應鼎, 朴淳, 奇大升, 高敬命, 白光勳, 崔慶昌, 林梯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인물들은 각기 名士로 칭송된 인물로서 당대의 학문과 시문학에서 독창적인 시학과 학문세계로써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명성이 자자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앞서 말한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한 時代的 상황에 처했던 선비들로서, 특히 호남이라는 地緣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진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在地的 기반을 가진 당대의 知識人이요, 정계의 소용돌이에 희생양이 된 在地土族이라는 데서 서로의 교분은 자연적으로 긴밀해질 수

15) 이수광, 『芝峯類說』

16) 정두경, 『松川集序』

17) 허균, 『槿所覆菰羹』

밖에 없었다. 이들은 몸소 鄉里에서 「소학」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등 어른을 섬기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師承關係이기도 하고, 함께 從學하던 同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유대관계에서 지식인들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상호간의 학문과 詩의 교유였다. 詩歌詩人의 文集에 서로 唱和酬唱한 시詩가 많이 전함은 바로 이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소신과 신념 및 동일한 세계관과 독서취향 나아가 사승관계 등에 의해 詩作活動을 전개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시창작 정신이나 또는 원리 곧 詩學에 의한 창작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호남의 시가시인이 詩의인 모임을 비교적 활발히 한 것은 조선 중기 中宗朝의 己卯土禍(1519) 때 부터라고 한다.

중종 14년 己卯年에 土禍가 일어나자 賢良科 등으로 政界에 입문한 많은 湖南人들이 流配되거나 削職되었으며 타지방 土類들은 全南으로 落南하거나 유배되기도 하였다. 앞의 든 인물 가운데 최산두, 윤구, 유성춘, 양팽손, 박상 등이 이른바 호남출신의 己卯名人으로서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기묘사화로 인하여,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로 이어지는 도학을 물려받은, 趙光祖는 전남 화순 陵州로, 申潛은 전남 長興으로 유배되어 호남의 土類들과 더욱 깊은 인연을 갖게 되었다.

조광조(1495-1519)는 얼마 되지 아니하여 곧 賜死되었지만, 신잡은 17년간을 장흥의 유배지에서 살았다. 그는 이곳에 귀향은 후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고향인 해남에 물러나 있다가 영암으로 유배된 윤구,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며 기묘명현들과 뜻을 같이 하였던 박상(1474-1530)과도 왕래하며, 매우 다정하게 지냈다.

해남 윤씨 문중에 전해오는 『棠岳文獻』에 의하면, 윤구는 호를 橋亭 자는 亨仲이라 했는데 최산두(1483-1536)와 유성춘(호는 懶翁 또는 鷺巖이라 했음)등의 여러 선비는 물론, 임억령(1496-1568), 박상, 신잡 등과 相遊하며 詩社會의 모임을 갖고, 佳辰에 즈음하여 "편지로 부르고, 말을 함께 타고 모이되, 미처 이르지 못한 자에게는 大白의 罰酒를 내리고, 혹

은 시를 지어 酬唱하였는데 이렇게 함이 수십년이 되었다"고 전한다.¹⁸⁾

이와 같은 진술은 조선조 중종 때 호남지역에 시회詩會가 성립된 사실을 전하는 중요한 기록이 된다. 이를 근거로 추론컨대 호남 시단은 이미 조선조 중엽에 완성되었으며, 이런 시회를 통해 호남의 문학은 한층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상은 이곳 시단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忠州의 知非川 위에 있는 工字堂의 선비들 모임에도 참여하여 講學하고 그 主人인 金世弼(1473-1533)등과 시회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박상이 참여하였던 호남과 충남의 두 시회詩會는 당시의 대표적인 시단의 형성에 기여를 하였거나 時代的 苦惱를 같이하는 同好人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다. 그 중 호남의 시단은 作詩唱和를 일삼던 詩人들간의 모임이라는 데에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다.

작시창화는 누군가에 의하여 原韻이 지어지면, 그 詩韻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뒤를 이어 시를 지어 화답하는 행위이다.

그러면 이 같은 조선조 전기 호남의 시단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하게 되었는가?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서 후배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던 인물人物을 중심으로, 그들의 詩的 交遊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光州地域의 시가시인을 보면 박상, 박우(1476-1546), 박순(1523-1589), 기대승(1527-1572), 고경명(1533-1592) 등이 있다. 그 중에 박상과 박우는 兄弟間이요, 박우와 박순은 父子間이다. 박상의 長兄으로 朴禎(호를 荷村, 자는 馬用이라 함)이 있었는데, 이 3형제는 글에 능하여 중국 송나라의 三蘇(蘇洵, 蘇軾, 蘇澈)에 비유하여 東國의 三朴으로 칭송되었던 名士들이다.

특히 박상은 현량과로 추천되어 정계에 나간 이른바 新進士類로서 김굉필(1454-1504)에게서 17세 때부터 도학을 배운 조광조 등과 뜻을 갈

18) 『棠岳文獻』(禮), 『海南尹氏文獻』, 卷1

이 한 己卯名賢이다. 『訥齋集』에는 그의 詩가 약 1200수 전하는데 거기에는 己卯黨人과의 交遊詩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己卯土禍로 장흥에서 유배살이를 했던 신잠과 시회를 같이 하였다 함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박상은 신잠이 流配地에 있는 동안 장흥의 迦智山에 있는 寶林寺와 迦智寺를 왕래, 시대적 아픔을 같이하며 詩情을 나누었는데 임억령, 윤구와는 물론 李構(1484-1536), 李和之 등의 형제와 同行하기도 했다. 『訥齋集』에 의하면 신잠과의 교류시로 제작한 작품이 무려 114수나 되는데¹⁹⁾, 이런 숫자는 당시 己卯名人들과의 교류시로는 가장 많은 수에 이른다.

雖通深山晦姓名	깊은 산에 숨어 이름 없이 산다 한들
有時天變亦關情	천기 변할 때면 또한 가슴 졸인다.
夜來風雨知多少	밤사이 비바람이 얼마나 휘몰아쳤나
揮淚佳花落滿庭	아름다운 꽃들이 뜰에 가득 눈물겹구나

이는 朴祥이 申潛의 시에 화답한 <山居百絕>중의 하나이다. <山居百絕>은 絕句詩 100수를 連作으로 이룬 長篇 7言詩이다. 그 중에 위의 시는 어수선하던 당시의 時代 상황을 우회적으로 노래한 그의 대표작이다. 박상은 이 시를 짓고 윤구와 이화지에게 보이며 감상토록 하였다 한다. 이로 보면 20여세 年下인 윤구는 놀재를 어른으로 모시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訥齋集』에 윤구와의 交遊詩가 24수 전함은 양자간의 친분이 이처럼 긴밀했던 것을 뒷받침해 준다. 윤구가 최산두, 유성춘 등과 함께 湖南三絶로 일컫는 名士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이면에 이 같은 도학의 의리정신과 탁월한 문사적 재능을 겸비한 박상의 가르침과 感化가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상과 교분이 두터웠던 湖南의 人物로는 또 담양의 柳沃(1487-1519)

과 전북 순창의 金淨(1486-1520)을 들 수 있다. 세 사람은 義理 추구에 뜻을 같이 하여 乙亥年(1515)에 中宗의 廢妃 愼氏의 復位疏를 올리고 朴元宗, 柳順汀, 成希顔 등의 三勳을 指彈하며 論罪하였는데 이는 기묘사화의 遠因이 되었다. 이 을해소로 말미암아 金淨은 報恩으로 유배되고, 박상은 永平(지금의 南平)의 烏林驛으로 귀향을 갔다. 그 사이 세 사람은 시를 지어 뜻을 나누었는데 박상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제작한 시는 적지 않다.

한편 宋純, 林億齡, 鄭萬宗(호를 安老齋, 자는 仁甫) 박상의 門下에 들어 受學하였다. 名流 10 傑에 속하는 朴淳이 것처럼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이 있는 名士로 성장하게 된 것 또한 그의 숙부인 박상의 가르침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시각을 시단으로 옮겨 개관하고 그것의 의의 및 가치를 살피기로 하자.

조선시대 호남에는 두 개의 시단이 양대 산맥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면양정 시단과 성산동(식영정) 시단이 그것이다. 물론 소쇄원 시단, 환벽당 시단 등도 상정할 수 있음을 부기해 둔다. 송순(1493-1583)은 면양정 시단의 창도자였는데 박상이 潭陽府使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정만종과 함께 그에게 나아가 師事하였는데 정만종과는 그 때부터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吳謙(1496-1582), 林億齡, 申光漢(1484-1555)을 따라 從遊하였으며, 金인후(1519-1560), 임형수, 박순, 기대승, 고경명, 정철(1536-1593), 盧禎(1518-1578), 李珥 등은 그 門下에 들어 從學하였는데, 그가 담양의 露月峯 밑에 <면양정>을 짓고(1533), 20년 뒤에 담양부사 오겸의 도움으로 개축하였을 때는 기대승이 <면양정기>를 두 번이나 쓰고, 임제는 <면양정부>를 지었다. 또한 임억령, 金인후, 박순, 고경명은 <면양정 30영>을, 그리고 임억령, 金인후, 고경명, 노진, 蘇世讓(1486-1562), 李滉(1501-1570), 梁山甫(1503-1557), 尹斗壽(1533-1601) 등은 또 <次俛仰亭韻>을 제작하였으니, 송순을 주축으로 한 俛仰亭 詩壇의 위세가 어떠하였는지, 또는 후학에 끼친 그의 학문과 詩文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히 짐작 할 수 있겠다.

19) 박준규, 「놀재 박상의 교류인물과 시문의 제작」, 『놀재 박상의 문학과 의리정신』, 광주광역시, 1993, 103면.

특히 국문시가의 경우, 송순의 〈俛仰亭歌〉는 정철의 〈星山別曲〉에 그 수법, 어휘 구사, 성격 등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星山洞(息影亭) 시단은 임억령에 의해 창도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는 바, 湖南의 詩文學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임억령의 역할 또한 가벼이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역시 박상을 사사하여 詩會의 모임을 함께 하였으며, 송순과의 교분이 두터워 면양정 시단에 출입하였다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는 전남 海南에서 태어났지만 光光·라羅·장長·창昌의 인물들과 사귀면서 無等山麓에 자리한 星山洞과 石底村을 자주 왕래하였다. 담양에는 별피(성산)의 산언덕에 息影亭 및 棲霞堂이 있었고, 또 권돌마을에 蕭灑園, 그리고 충효리의 環碧堂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송순은 이를 一洞三勝이라 칭송하였거니와, 임억령은 이곳의 勝地를 출입하며 많은 시를 남겼다. 그의 시 삼천여 수 가운데 이 성산동에서의 作詩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⁰⁾

임억령은 여기에서 고경명, 정철, 김성원(1525-1597) 등과 함께 星山四仙으로 자처하면서 呼韻作詩하고 酬酌唱和하였다. 성산 四仙 가운데 그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으로서 강남의 詞宗으로 기러온 인물이다. 김성원은 그의 사위이자 제자로서 29세 년하였으며, 고경명과 정철은 41세나 아래인 사제관계로서 이 세 사람은 임억령에게서 시를 배우며 사사하였지만 서로 酬唱할 때는 忘年之交의 詩友가 되었다고 한다.

위의 세 사람은 임억령의 원운 〈息影亭 二十詠〉에 차운하였는데 송순도 이에 차운함으로써 〈식영정 이십영〉 시는 모두 일백 수에 이른다. 송강, 제봉, 인재 등은 석천의 〈棲霞堂 八詠〉시에도 차운하였으니 당시의 시회가 얼마나 성하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정철은 시가문학상 강호가사의 으뜸이라 할 〈성산별곡〉을 담양의 성산에서 제작하였는 바, 위의 가사는 〈식영정 이십영〉, 〈서하당 팔영〉 등의 한시에서 거둔 발상, 소재, 기법 등의 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잉태된

성산시단의 결실이 아닐 수 없으며, 무등산 원효사 계곡에서 始源한 溪山風流의 시적 분위기와 전통의 영향 때문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임억령은 위에 든 4仙뿐만이 아니라 소쇄원을 경영하는 양산보, 환벽당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김윤제, 그리고 식영정에 자주 출입하던 송순 등과도 어울려 수많은 星山洞題詠을 지었다. 우리나라의 三唐詩人으로 일컬어진 백광훈, 최경창은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大詩人인데, 그 중 백광훈은 성산동을 찾아 함께 詩의交遊를 하는 등 陰陽으로 석천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는 호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16세기에 성황을 이루었던 星山詩壇은 명실공히 호남시단 뿐만 아니라 조선시단을 크게 발흥시킨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당시 호남의 시인으로서의 김인후와 최산두의 人脈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인후는 乙巳土禍(1545) 이후 벼슬을 버리고 향리인 長城에 돌아와서 性理學의 연구와 도학의 실천 및 詩文의 제작에 뜻을 둔 大學者요, 文人이다.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송순과 慕齋 金安國(1478-1543), 新齋 崔山斗(1483-1536)등을 사사하며 학문과 작시의 감화를 많이 받았지만, 기묘사화로 화순 同福에 유배와 있던 최산두를 찾아 수학한 것은 그의 學脈에서 성리학의 정통적 계승과 作詩生活의 人脈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하서 김인후는 서경덕, 백인걸, 성운, 정유길 등과 同榜한 인물로서 仁宗이 승하하자 옥과 현감을 그만두고 고향 장성에 돌아와 安貧樂道하는 은둔생활을 하였던 바, 그는 한 마디로 송시열이 지적한대로 “道學, 節義, 文章” 등의 세 가지를 모두 겸비한 대학자였다.

한편, 「河西集」에는 김인후의 시가 약 1600수 전한다. 하서는 김종직-김평필-김안국으로 이어지는 도학과를 계승한 대표적 인물로서 유희춘과 함께 김안국의 문하에서 至治의 王道政治 이념을 호남사람에게 연결시켰다. 거기에 양산보와 유희춘의 두 사돈은 물론, 그의 女婿인 梁子澗(양산보 아들)과 柳景廉(유희춘 아들)과의 교유시가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

20)최한선, 「석천 임억령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0-30면.

정통을 물려받은 학맥의 고귀함과 몸에 밴 도학자적 자세로 귀향살이 20년간을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한 결과, 그의 학문세계가 깊고 심오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희춘은 宣祖8(1675)년에 이조참판을 끝으로 사직하고 경사經史와 성리학性理學에 관련된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는 『國朝儒先錄』, 『語錄字義』, 『大學釋疏』, 『歷代要錄』, 『獻芹錄』, 『朱子大全語類』, 『綱目考異』, 『詩書釋義』, 『眉巖日記』, 『眉巖集』 등을 편찬 또는 저술했다.

특히 『新增類合』 2권 1책은 한문 입문서로서 뿐만 아니라, 16·17세기 국어사 연구에 귀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감사 시절 완산의 鎮安樓에서 朴和叔(淳)과 자연을 완상하면서 읊었다는 “미나리 한 필기를 캐여서 씻우이다”로 시작하는 시조는 그의 『미암집』에 전하는 한시문과 더불어 국문학사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충신연주 시조로 알려져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암일기』는 선조 즉위년인 1567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1577년 선조 10년 5월 13일까지 약 11년간의 시간을 자신의 일상사는 물론 조정의 대소사건, 경외京外 각 관청의 기능과 관리들의 생활, 나아가 당시의 사회의 풍속, 문화, 정치, 경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일기체 문학의 백미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와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일기는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1592년 이전의 승정원 일기가 모두 소실된 바람에 『宣祖實錄』 편찬에서 첫 10년간의 기초적 사료가 되었다. 『미암집』에는 주옥같은 시문 등 그의 문학인으로서의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한 시편이 실려 있다. 유희춘은 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시호가 문절文節인 것으로 보아 그의 문학적 역량과 지조있는 선비의 정신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는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장동에 있는 眉巖祠와 담양읍 향교리 취영

에 있는 義岩書院에서 단독 배향되고 있으며 茂長의 忠賢祠, 鐘城의 鍾山書院 및 海南의 海村祠(五賢祠)에서 해남의 三賢으로서 금남 최부, 석천 임억령 등과 함께 배향되고 있다.

이밖에 16세기의 호남시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송천 양응정(1519~1581)이 있다. 그는 자를 公燮, 호를 松川이라 했는데 己卯名人인 양팽손의 제 3자로 화순의 月谷에서 출생하였다. 양팽손은 연산조에 벼슬을 버리고 장성의 森溪에서 講學 수양하고 있던 知止堂 宋欽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그는 己卯八賢인 조광조, 김정 등과 뜻을 같이 한 선비이다. 士禍에 연루되어 향리에서 27년간을 廢錮되어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양응정은 임억령과 주고 받은 시편들이 많은데 장편배율이 주를 이룬 그의 시편들은 서사한시의 전단계적 작품으로서 웅혼한 기상과 넘치는 기개가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부친의 가르침과 義理精神을 이어받은 양응정은 지조가 있고 文章이 뛰어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의 문하에서는 이름있는 文人으로 鄭澈, 白光薰, 崔慶昌, 白光彦 등이 배출되어 훌륭한 호남시단의 脈을 이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江南의 詞宗이라한 임억령과는 시적 논쟁이 많았다. 석천은 24세의 年上이지만 이른바 詩爭이라 할 정도로 시를 다투어 지어 酬唱하는등 당대를 떠들썩하였다. 그들간에 제작한 <棠城酬唱詩>가 바로 詩爭으로 말미암은 대표작이다. 『松川集』에 의하면 서로의 수창시가 수백편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소실되어 얼마 되지 않는다.

15·16세기에는 위에서 말한 名士들이 나타나 국문학사에서 士大夫文學은 상승기를 맞이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호남시인들의 두터운 인맥과 걸출한 역량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5. 結語

우리는 앞서 湖南 士林 人脈의 형성과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바와 같이 그 실체는 微弱하기 짝이 없다. 그 까닭은 위에서 언급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수많은 문인들이 호남시단의 傳統과 脈을 면면히 잇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인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과 아직 발굴되지 못한 인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호남의 학맥이나 인맥 관계 등을 通時的으로 鳥瞰하기엔 아직 時機尙早라는 自愧感이 든다.

그나마 다행히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을 기획하여 간행하고 있고, 景仁文化社에서 『韓國歷代文集叢書』를 간행하는 가운데 호남 문인 100명의 문집을 포함시켜 100권을 출간한 것과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鄕土文化資料』 32권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문집이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康津郡에만도 30여 종의 미공개 문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影印 작업은 물론 번역작업, 기 번역된 자료의 문화 콘텐츠로의 활용방안 등 본격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남대 김대현 교수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집대성은 물론 콘텐츠화를 하고 있음은 꺾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晩時之歎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湖南詩學, 나아가 湖南學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의 당대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명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湖南 詩壇에 대한 연구는 訥齋 朴祥의 문하에서 수학한 俛仰亭 宋純과 石川 林億齡이 개창한 俛仰亭 詩壇과 星山洞 詩壇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호남시단의 시 창작 정선

또는 원리 등 호남시학의 특징을 밝히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錦南 인맥과 연계된 여러 훌륭한 시인은 물론 아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많은 문인에 대한 연구를 아우르는 巨視的 시각이 요구된다.

아직 연구가 일천하여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금남의 학맥을 이었거나 영향 받은 사람들은 일기(미암), 연작시(나위소, 윤선도), 서술시(행당, 풍암) 등 풍류적, 낭만적 서정시 창작 보다는 현실적 문제와 밀착된 문제를 다루거나 서사적 서술시의 세계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호남시학의 또 다른 면모임이 분명하다.

21세기 韓國學은 性理哲學의 우수성과 더불어 抒情美, 浪漫性, 風流道, 現實感, 方外氣質, 纖細美 등에서 단연 뛰어나다는 호남 시문학이 세계 문화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남학은 고려시대부터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온 지역 土班家의 自生的인 힘과 명분 없는 조선 개국과 세조의 王位 篡奪에 반대하여 落南해 온 외부 엘리트 세력, 그리고 영남에서 발원·영향 작용한 성리철학과 도학에 힘입어 형성, 발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호남은 조선시대 학문과 시문학의 메카로서 그 명성에 걸맞은 훌륭한 집적물을 창출하였거니와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이루어진 학문적·문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할 책무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文化戰爭의 시대라고들 입을 모으고 있거니와, 이는 달리 말하여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훌륭한 文化遺産과 傳統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욕구와 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민족적 에네르기화할 수 있느냐의 역량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영·호남을 한국학 부흥의 적지성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이상에서 살핀 대로 학문적 전통과 인맥의 연결고리 나아가 시가문학의 찬란한 集積成果에 있거니와, 이제는 구체적 대안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기반확립과 분위기 성숙이 영.호남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歷史와 傳統이 資力이 된 한국학이 새로운 세기의 가늠자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호남학 중 사상과 문학은 그 한 뿌리가 영남학에서 내려 뻗은 것이며 그 뿌리의 건실함과 튼튼함은 가치와 있을 무성하게 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 이른바 深根茂葉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남학과 호남학의 우열을 논하는 편협한 생각을 지우고 그 둘의 특징을 어떻게 문화 창조와 지식 창조의 에너지로 활용할 것이며, 그것들의 당대적 의미를 뛰어 넘어 현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명작업에 모두가 하나 되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한편, 安裕-權溥-李穀-鄭夢周-權近-崔德之로 이어지는 학맥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덕지는 조선 초 호남에 성리학을 전파한 인물로 영암의 鹿洞書院에서 崔忠成, 金壽桓, 金昌協 등과 함께 配享되고 있는데 그의 門下와 交遊 인물에 대한 연구는 호남 사림의 일단을 살피는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안유-권부-이곡-정몽주-김숙자-김종직의 학맥을 거치지 않고 형성된 호남 사림의 一脈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남을 거쳐 형성된 호남 사림 학맥과는 그 성격을 분명 달리할 것이므로 上고詳考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 芙蓉亭을 짓고 향약을 통하여 鄉村教化 등으로 초기 성리학을 전파한 金文發, 정인지 등과 『고려사』를 수찬하고 權近과 權遇 등에게 수학한 뒤 광주에 회경당을 짓고 향약을 시행한 李先齊는 東人の 중심 인물이었다던 李潑과 李涪의 선조로서 이 지역 학문 발전에 공헌한 실상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금남의 『漂海錄』은 임란 때 중국을 체험하고 기록한 魯認의 『錦溪日記』와 일본을 체험한 宋希璟의 『老松堂日本行錄』, 姜沆의 『看羊錄』 등과 함께 호남을 대표한 기록문학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의 原生成 資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棠岳文獻」(禮), 『海南尹氏文獻』, 卷1

『東國文獻錄』, 門生編

유희춘, <금남선생집서>, 『금남집』

이수광, 『芝峯類說』

정두경, 『松川集序』

허균, 『惺所覆謁藁』

고영진, 『호남 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17~29면.

박준규, 「눌재 박상의 교유인물과 시문의 제작」, 『눌재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광역시, 1993. 103면.

이종범, 『나는 호남인이로소이다』, 사회문화원, 2002. 561~562면.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전남문학변천사』, 한림, 1997. 98면.

정지용, 「17세기 전기 무등산권의 한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7~38면.

최한선 외, 『다시 읽은 미암일기』, 도서출판 무진, 2004. 11면.

최한선, 「석천 임억령 시문학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0~30면.

최한선, 「성산별곡과 송강 정철」, 『목원어문학』 제9집, 1990.

최한선, 「풍암 서술시의 이해론적 전제와 미학」, 『古詩歌研究』 제11집, 2003.

최한선, 「호남 시가의 풍류고」, 『古詩歌研究』 창간호, 1993.

최한선, 『윤복의 생애와 관련 유적』, 목포대 박물관, 2003. 15면.

<Abstract>

嶺湖南士林及錦南崔溥

崔漢善

崔溥(1454—1504)字淵淵, 号錦南, 明朝朝鮮全羅道耽津(即今韩国康津郡), 進士澤的儿子。崔溥是佔畢齋(金宗直)門下, 不幸戊午士禍(1498)时因家里被发现佔畢齋文集, 他受杖刑后流放到偏僻端川, 然后甲子士禍(1504)时被处刑。錦南崔溥被评为韩国湖南士林人脉的第一个世代。

连接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的一些人的学脉跟连接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金宏弼的学脉对韩国湖南士林的形成和发展起了很大的影响。

韓國湖南士林分为两大类。朝鮮王朝交替期(1392)和世祖的篡奪王位事件(1455)時入乡或被露乡的勢力。前者是光州出身錦城范氏范世東、羅州出身河東鄭氏鄭地、天安全氏全新民、在鄉下隱居的沃川趙氏趙瑜、光山金氏金子進、金麟厚祖先蔚山金氏金穩、光州卓氏卓光武等。

后者世祖的篡奪王位事件時在鄉下隱居的是順天金氏的金宗瑞、流放到長興的晉州鄭氏鄭萃、在靈巖隱居的南平文氏文孟和、在光山隱居的朴祥的父親忠州朴氏朴智興、在務安隱居的務安朴氏朴益卿、在長興隱居的忠州金氏金麟、在高興隱居的礪山宋氏宋侃、在淳昌隱居的高靈申氏申末舟、在羅州隱居的慶州李氏李碩、在海南隱居的原州李氏、在潭陽隱居的洪州宋氏、在咸平隱居的陽城李氏、在靈巖隱居的咸平魯氏魯宗周等。

其次是嶺南系的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學脈。湖南士林分为金宏弼、崔溥、宋欽、朴祥、李恒、金安國系, 细看湖南士林的分类分析, 除了朴祥以外都是其淵源在金宗直。

崔溥系主要是在海南和羅州活動的人物。崔溥學脈是尹孝貞、林遇利、柳桂

隣、羅晔、尹衢、尹巷、尹行、尹復、柳成春、柳希春、李仲虎、鄭介清、羅士忱(錦南的外孫子)、羅德明等6兄弟、羅緯素(羅德培的兒子)等人。

住在海南蓮洞的尹孝貞是孤山尹善道的高祖父, 以跟海南鄭氏家婚姻为跳板復興名門貴族。尹孝貞的三個兒子橘亭尹衢、尹行、杏堂尹復是公认的诗书门弟。尹衢的兒子历任左參贊, 他的兒子尹惟幾历任江原道觀察使。他抱养了尹善道继承下来了海南尹氏家的榮譽。孤山尹善道寫瞭『孤山遺稿』『漁父四時詞』40首等 75首诗歌。孤山尹善道與长歌松江一同称为韓國文學界的皇帝。此外尹氏家在壬辰倭亂和丁酉再亂中培养出了許多的義兵將, 在救国运动中立了大功。

尹衢的女婿履素齋李仲虎是在光州初次实行鄉約, 以鄉校爲中心振作了儒學。他历任全羅監查和大提學, 有四子汲、潑、洁、漫。

杏堂尹復历任全羅道使、忠清道觀察使, 写出了『杏堂先生遺稿』及许多漢詩。杏堂的甥姪楓菴 文緯世在退溪門下学了「八陳圖」, 研究了性理學。壬辰倭亂和丁酉再亂中跟5个儿子、奴僕、弟子一起举行了义军蜂起, 特别是在自籌軍糧米中做出了很大贡献。

柳桂隣有两个出众的儿子懶齋柳成春和眉巖柳希春。柳成春同尹衢、崔山斗被稱誦为湖南三傑, 又历任了吏曹銓郎, 但因己卯士禍时被流放到边疆并夭折的缘故没留下特别的业绩。柳希春写出了有名的『眉巖日記』。『眉巖日記』是从宣祖即位年(1567)起十年时间里的公私内容的日记, 在当时历史研究上很有研究价值。他校訂『朱子大典』, 编纂『國朝儒先錄』, 写出『眉巖集』, 还刊行外祖父崔溥的『漂海錄』。

流放到鏡城的羅德明在流配地遇到壬辰倭亂, 在战乱中討伐鞠景仁等的叛亂留以功绩。也有文学方面的知识流传『嘯浦遺稿』。他儿子羅緯素是短歌『江湖九歌』的作者。他的诗歌作品和孤山尹善道的『漁父四時詞』相提并论, 又被评为江湖詩歌潮流的继承。

羅德憲从流配地被释放后壬辰倭亂和李适之亂(1624)时立下了功勋, 而且善于外交的他访问了三次瀋陽, 被国王称为忠烈諡號。

林遇利是善山人，其父秀的四个儿子元、亨、利、貞中排老三。林亨有五个儿子千齡、萬齡、億齡、百齡、九齡都是贤达。林千齡被迫贈領議政，写出了『遜庵先生文集』。林九齡历任光州牧使以善政被称为清官的稱誦。林百齡被迫贈右議政，乙巳士禍时受祸了。

林億齡(号石川)是韩国湖南歌词的詞宗，被退溪、栗谷、聽松、玉峰、高峰、河西、龜峰等盛赞叫大诗人。同霽峰高敬命、松江鄭澈、棲霞堂金成遠等一起有时以朋友交流，有时以師弟关系交遊，开展了不拘一格，又不失氣稟和格調的讲学与诗的创作活动。

从上述来看崔溥的湖南学脉是连接安裕-權溥-李穀-鄭夢周-吉再-金淑滋-金宗直-崔溥(1454-1504)的韩国士林正脈。从崔溥门下辈出的人在韓國儒學史上、韓國文學史上、韓國義兵史上都有很多影响。他门下一些人的文学方面的成就因跟以前浪漫情緒的不一样，跟标榜溪山風流的当时诗歌派的不一样，有着更深的意义，他们创作了新诗歌世界。

他的史學、文學、經學等学间的影响对以海南和罗州为中心成立的湖南學有很大贡献。特别是在文学方面直到17世纪中期(羅緯素1582-1666)还活泼地流传了下去。此后以羅景煥(性菴家藏)、鄭錫珍(蘭坡遺稿)、羅允煦(錦坡集)、羅燾圭等形式继承到20世纪的文学，现在移行到了近现代文学。

核心語：錦南 崔溥, 湖南 士林, 嶺南 士林, 湖南學